

민주당-조국혁신당 “압승으로 정권교체”

전북공동선거대책위 구성
최다 득표·최대 투표 호소
첫 연합협력 선거운동

D-18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5일 6.3 대선의 압도적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공동선거대책기구인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양당은 전북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지역 실행기구로서 제4기 민주정부 출범 위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 활동하며 시도당에도 지역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내란세력들은 확실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도적 승리가 최선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민들의 최대 득표율(90%), 최대 투표율(93%)로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달라" 호소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발전



‘아재들의 선거운동’

민주당 정읍·고창위원회의 염영선 도의원, 이상길 정장철·김석환·고성환 시의원이 선거운동 올돌림 '아재댄스단'을 구성해 15일 정읍시 샘고를 시장에서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되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형, 예산, 호남에서조차의 소외 됐던 전북을 승리를 움켜쥐고 중앙정부까지 다다라 전북의 기폭제가 되도록 모두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 종식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양당의 발걸음에 도민 모두 함께 걸어 승리의 나팔을 불자"며 "단결

과 협력속에 전북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번 전북지역 양당 선거 협력체제 출범은 첫 연합협력 선거운동이다.

상임공동위원장은 유인철, 김성수, 최영신 3명이 지명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시작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정읍여고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활동 후 원불교 전북교구를 방문했으며 모래내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에서는 전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전북 17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영태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오늘 전북 방문

두번째 전북 방문 지지 호소
익산역이성당-전북대서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두번째 전북을 방문한다. 특히 이 후보의 이번 방문에서는 전북지역에 대한 대선공약 발표도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익산역에서 익산시민과 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에는 군산을 방문해 전국으로 알려진 이성당에서 관계자 및 군산지역민들과 만남 후보 유세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전북대 구정문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여론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정읍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이 후보는 부산과 경남, 전남을 잇는 일명 이순신벨트를 중심으로 선거유세를 진행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한국축제박람회 14개 시군 홍보전 총력

전국 겨냥한 관광 세일즈
드라마·축제 콘텐츠로 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1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1회 한국축제박람회(K-Festival)'에 참가해 전북 14개 시군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한국축제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축제포럼 등이 후원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회 주관 및 대행을 맡고 있는 동인전람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 전문 박람회로 전국 지자체, 여행업계, 관광 유관기관 등 150여 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축제 콘텐츠를 홍보하고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박람회는 '트래블쇼 2025', '메가쇼 2025 시즌1'과 함께 일산 킨텍스에서 동시에 개최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총력 홍보전에 나선다.

전북 홍보관은 각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지인 고창 청보리밭을 비롯해 전북 14개 시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 촬영지도 함께 소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홍보관에서는 이벤트와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해 참관객의 눈길을 끌고, 전북 관광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관광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예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는 전담여행사를 배치해 전북 관광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관람객 대상 1:1 맞춤형 일정 구성, 추천 코스 안내, 단체·개별 관광 상담 등 밀착 서비스를 통해 현장 예약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박람회 주최 측이 주관하는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관광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동 마케팅·연계 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상공인들, 23개 핵심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전북상협, '경제계 제안집' 전달
국가균형발전등 핵심현안담아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미래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경제계 제안집'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전북 핵심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지

역산업 경쟁력 제고 △교통 및 산업인프라 확충 △산업계 혁신전환과 성장촉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3개의 세부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낙후전북 탈피를 위한 국가예산 대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공공·행정기관 설치 △농협중앙회 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남원 설립 등

7개가 과제가 제시됐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는 △국립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첨단소재 기반 차세대 K-방산허브 구축 △의료용 헬프 산업 생태계 구축 특화단지 조성 △국립 지독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교통 및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속건설 및 공항 규모 확대 △KTX증편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확대 △전북 핵심

간선 교통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관법 개정으로 조속한 후속조치 및 계획 반영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총 6개 과제를 중점 건의했다.

산업계 혁신전환과 성장촉진 분야에서는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국경과제 선정 지원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지원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K-수소상용모빌리티 조력차 허브 지정 등 5개 과제를 제안했다.

/김영태 기자



정동영 의원 “보건의료 정책 해결 AI 적극 활용해야”

AI G3강국신기술전략포럼
AI활용대기업스타트업
시장진출현장사례공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시존2)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AI를 활용한 미래 의료 생태계 발전과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정 의원은 AI를 활용한 평균수명 연장과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AI & Data for Digital Healthcare’를 주제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생태계 발전과 평균수명 연장,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향후 5대 암 진단 데이터를 시작으로 전 질환 진단 데이터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을 밝혔다.

서범석 루티 대표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글로벌 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루닛은 암 관련 빅데이터(영상, 유전체, 전자의료기록, 보험 청구 데이터 등)를 통합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활용한 맞춤형 AI 모델 제공,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와 협력한 AI 기반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확대, 자율형 AI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AI와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의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데이터 표준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의 안정화를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AI를 활용한 암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기술의 발전이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이고, AI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 의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를 기대하며 격려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최우식 닥노이드 대표, 김정욱 닥엑스 부사장, 권준명 메디컬AI 대표,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센터장, 박창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안지성 어반데이터랩 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지난 14일 열렸다.

표, 장혁재 연세대산학협력단 교수,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 정태명 히포티앤씨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아영 LG 상무, 이영탁 SKT 사장, 김진구 플리토 이사, 문용준 인콘 상무, 박윤하 스피어AX 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센터장은 AI 의료 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병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증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탁 SKT 사장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AI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를 대표해 이도한 카이스트 기획처장은 AI의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하며, AI가 직접 진단하고 진료하는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공공 부문을 대표해 박윤규 NIPA 원장은 의료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실증 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며, 기술 활용에 있어 작은 실증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실용적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 시 엄중 처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시설물 등 도내 4,700여 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정당당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 직무인턴’ 220명 선발

39개 기관기업 참여
취업역량 강화 29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며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전북의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운영되

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7개 기관·기업에서 21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모집 경쟁률은 약 58:1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전북은행,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기존 참여기관뿐 아니라 LS엔트론, 전주소통협력센터 등 신규 참여기관을 포함한 총 39개 기관·기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선발 인원은 총 220명이다.

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5주간, 희망 직무에 따라

도내 기업·기관에서 인턴십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본격적인 인턴 시작 전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실무 적응력과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은 청년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라며, “지역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윤덕 의원 “이재명 후보, 빛의 선거 주도할 것”

“이번 대선 준비된 후보
급조된 후보간 대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15일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 부본부장과 총무본부장, 테러 대응 TF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사무총장은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준비된 실력”이라고 말한 뒤, 이번 대선은 검증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이재명 후보와 극우보수를 등에 업고 벼락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이라면서 과연 누가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캠프는 준비되지 않은 선수로 싸우려니 반칙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명태균식 왜곡·날조와 눈속임 여론조사가 등장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글들이 SNS에서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당당당하게 승부하겠다”면서 “준비된 정책으로 국민의 희



김윤덕 의원

망을 되찾기 위해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선거’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호남행 일

정을 소개한 뒤 “이재명 후보의 ‘국민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 일환으로 15일 광주전남, 16일 전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호남에서 유세 일정을 개시한다”고 소개한 뒤 “굴곡진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호남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주인공으로서 호남이 민주당에 주신 힘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총장은 “IMF 극복을 위해 김대중을 선택했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영남 사람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전북과 전남 광주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국힘 탈당 무소속 김상욱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민주당 전북도당, 논평
“결단 환영·국힘 심판할 것”

파렴치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헌과 불법의

12·3 비상계엄부터 내란 세력의 드잡이 속에서도 외롭게 싸워온 김 의원에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이재명 후보 지지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은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반성도 참회도 없는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홀로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윤석열 탄핵을 설득하던 김상욱 의원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한다”며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역시 그날의 절박함에 따른 선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을 발판삼아 부상했고 ‘내란 대행’과의 단일화 팔이를 팔감으로 후보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내란 계엄에 대한 심판과 내란 세력 청산이 1번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하나도 부응할 수 없는 무자격 후보라고 주장했다.

/정재근 기자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칼, 도미는 구분
해서 사용하기



식재료, 주방기구는
깨끗이 세척



적정 온도로
음식을 보관하기

전주시 “완·전 통합 발전 청약권 완주군민 우선 부여”

문화·체육·산업 상생발전 한지 국제교류센터 건립 등 9개 주요 사업 내변제 발표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 통합을 염원하는 4번째 발전 및 사업 공약으로 아파트 청약권에 대해 완주군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 민협의회위원회(위원장 박진상)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담당 분야 시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갖고 문화·관광·산업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9개 사업은 △군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대형 상업시설 유치 △봉동 공공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대자동차 급 대기업 유치 △경륜장 이전 △전주월드컵골프장 18홀 확대 이전 △완주·전주 특성과 관광벨트 지정 및 조성 △K-한지 국제교류센터 건립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 신축 등이다.

전주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 예상되는 청약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군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지역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통합일로부터 2년간 완주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완주군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통합으로 인한 과도기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주에 백화점과 쇼핑몰 등 16개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한 반면 완주군에는 유사 시설이 없는 만큼 완주·전주 통합 이후 완주군 내 대형 상업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 이후 전담 TF를 구성해 유통업체 접촉과 투자 유치에 나서고, 관련 행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형 상업시설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우수 제품 입점 △농축산물 직매장 설치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봉동 공공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이 이뤄지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현재 봉동읍 일원에 165만㎡(약 5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통합 이후 핵심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급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수소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키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의 경우 1991년 준공돼 30년이 경과한 자전거경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완주군 일대에 최신식 경륜장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 통합을 염원하는 4번째 발전 및 사업 공약으로 아파트 청약권에 대해 완주군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사진=전주시>

을 이전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을 고려 중인 전주월드컵골프장도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골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으로, 전주·완주 후보지 대상 물색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K-한지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완주 대승한지마을 일원에 K-한지 국제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국립전주박물관 인근 현 전주역사박물관을 완주군의 지역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으로 신축 이전해 전북권 공동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시청·시의회 청사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분 △농업 분야 비전에 이어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반영해 4번째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산업경제 분과위원장은 “대 광범 통과나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과 같은 외부적 여건과 맞물려 통합시가 전북자치도 내 광역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협의회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향후 전주와 완주가 함께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 인후반촌 도시재생 사업 ‘윤곽’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축설계 당선작 선정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노후주택이 밀집된 인후반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전주시는 최근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이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지우산 그라운드 지우정’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설계안에 따르면 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균형 잡힌 건물 외관 및 배치로 보행 여자를 배려한 점과 보차분리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 구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복지·문화·창업 복합커

뮤니티 공간과 지역 주민의 교류·편의 공간 등을 갖춘 지역자력형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환경을 지닌 진북동과 인후동, 서노송동 등 전주시 3개 동이 접해 있는 지역에 지역 맞춤형 정주 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우산마을로 불리는 인후반촌 지역에 맞는 공모 당선작이 선정돼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조성될 이 거점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쉼터 역할이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 노후주택 정비 낙수정마을, 새롭게 탄생한다

총사업비 43억여원 투입 민관협력 주거환경 개선 참여기업 자재·재정지원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마을 주민들이 생활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공모에 낙수정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 대상지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노후주택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낙수정마을의 지원 규모는 약 50채 내외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재 및 예산 후원을 통해 기존 새마을사업 대비 일반가구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져 보다 많은 가구

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사)한국해비타트가 시행을 맡고, △KCC(에너지 효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창호) △코맥스(스마트홈 보안장치) △신한벽지(벽지) △경륜다비엔(난방시설) △도시주택보증공사(기부금)가 참여해 각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집수리 자부담분이 기존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약 6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낙수정마을은 지난 1950년대 이후 판자촌 및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마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낙수정 새마을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43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2027년 전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계단 및 골목길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복합이용시설 및 쉼터 조성 △주택 정비를 위한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마을 주민들이 생활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사진=전주시>

집수리 및 공·폐자 정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

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고, 품질 높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 80대 실종 노인, 경찰전 수색 끝 숨진 채 발견

치매 환자 A씨가 실종 4일만에 전주 소재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청장 김철문)에 “아버지가 주거지에서 혼자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치매 전주 지역민 80대 환자 실종이 접수됐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특공대는 15일 수색견 및 소방 등을 동원해 합동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특공대는 실종자 수색에서 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특공대 탐지팀 수색견(저드)이 극적으로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저드 활약으로 발견된 A씨는 심정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종자를 발견한 경찰특공대 수색견 저드는 5살 된 셰퍼드다.

저드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종자, 자살의심자 등 발견을 위한 수색 전문 견으로 평소 특화된 훈련을 통해 금일 실종자를 수색 시작후 단시간만에 발견했다.

전북경찰특공대장(박성찬)은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독서대전’ 10% 할인가 북마켓 운영

6월9일까지 출판사서점 등 모집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 출판 문화축재인 ‘제8회 전주독서대전’ 기간중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북마켓을 운영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전주독서대전’에서 북마켓을 운영하며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전국 출판사와 서점, 책방 등 28개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북마켓 운영단체는 축제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10% 할인 판매하게 된다.

또한 북마켓 참여단체들이 선택사항으로 도서 채움 행사와 소규모 작가 강연 등을 운영할 경우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지 않

는 단체의 경우 지원금 없이 도서관 판매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6월 9일까지 25일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누리집에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월 16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독서대전이 전주를 대표하는 책 문화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 책방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요로운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환경청, 화학사고 대비 중소사업장 지원

외국인 근로자 맞춤자료 등 배포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중소 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국적 언어(베트남, 몽골 등 11개)로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과 사고 시에 대처요령 등 교육자료를 소책자와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했다.

여기에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도 병행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대비 역량과 화학안전 인식을 높였다.

또 사고 시에 정전 등으로 동선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 내부 대피로에 이동방향 표시(형광 성분)를 설치하고, 대피장소(사업장 내·외부)와 주요 취급 물질 정보 및 인근 비상방재함 위치도가 담긴

QR코드를 각 사업장에 맞춰 제작해 지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이 많아 지역사회 우려가 큰 군산 지역 산업단지에서 위험 공정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다수 있는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반기부터는 전북 지역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인근 사업장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비상방재장비함(안전장구, 방제물품 등 비치)을 작년 연말에 군산지역 산업단지에 설치(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 4개소, 전북지방환경청 1개소)해 운영중이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 전북 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도 추가 설치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 문화 확산

질병상담 등 의료정보 제공

전주완산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홍보한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와 병원 선정 및 이송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질병상담, 병원 및 약국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용방법은 119에 전화해 의료 상담 및 병원 안내를 요청하면 곧바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요원에게 전화가 연결된다.

각종 안내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과 구급상황관리센터 활용 방법 등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진행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 방법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지상으로

화재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지하 시설 170기 지상이전 화재 방지 장치 4종까지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도 최대한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 조사결과 전주시역에 설치된 총 574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공동주택이 3638기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954기(53%)가 현재 지하에 설치돼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덮개, 상방향방사장치, CCTV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충전시설은 1기당 1200만 원,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 이전 사업의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은 5월 15일부터 오는 7월 25일

까지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안전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 전달 및 제2차 회의'에 15일 참석했다. <사진=전주상의>

전주상의, 대선판에 공약 과제 전달 비수도권상의 제2차 회의 김경수 선대위원장 참석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 전달 및 제2차 회의'에 15일 참석했다.

제2차 회의는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현안을 반영한 대선공약 과제 전달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해 비수도권 지역 상공계가 제안한 핵심 과제를 전달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과 비전을 공유했다.

/김영태 기자

비수도권상협이 전달한 대선공약 과제로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적용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정책 유지 등이며, 향후 지역별 도당 위원장에 대선공약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 간의 협력과 목소리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번 대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소통 창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협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내부 규제 혁파로 기업활동 날개 단다

규제개혁 3진 발굴 개선 추진 MOU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폐배터리기업 입주 기준 완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5일 적극행정제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 투자유치 과정

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에서 먼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해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직+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직+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두번째로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예정이다.

단,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정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부

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혁파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부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영국과 기후·생태·에너지 협력 기반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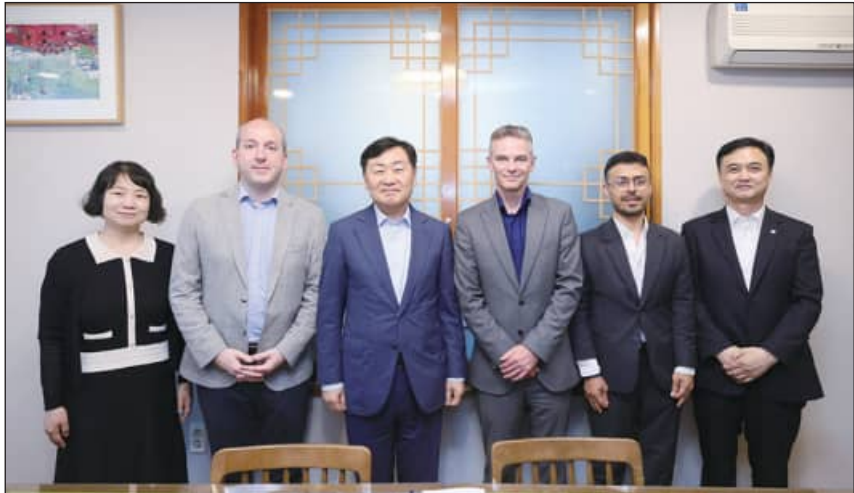
주한영국대사관 위어 부대사 전북 방문 김관영 지사와간담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김관영 도지사가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일행과 간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해상풍력, 생태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은 주한영국대사관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전북 현장 방문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군산대학교 해상풍력 연구 현장을 비롯해 고창 람사르 갯벌센터, 고창군청, 바닷새 번식지(칠산도·소노인도), 한국해상풍력 발전운영센터 등 전북의 주요 생태·에너지 거점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은 이미 고창 운곡습지가 람사르



김관영 도지사는 15일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일행과 간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해상풍력, 생태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습지도시로 인증받고,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역이다. 또 군산 해상풍력 실증단지들 중심

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적극 구축해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북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

책"이라며, "이번 방문이 전북과 영국 간 생태·기후 분야 국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영국은 기후 및 자연 문제 해결에 큰 의의를 두고있다"면서 "영국 내에서는 2030 청정에너지 달성 목표 추구하고 국제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호국들과 협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전환 및 생물다양성 복원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영국 외교·개발부(FCD)의 고위직 출신으로 네발·모잠비크 등에서 국제개발과 기후 정책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22년부터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로 재직 중이다.

/김영태 기자

서부산림청,자연재난대책기간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예측 모니터링·응급복구 중점 지역 산사태예방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 산림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 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해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사방면 25개소 등), 산사태취약지역(782개소) 현장점검,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정재근 기자

중진공,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정책자금 5천억 추경

관세 대응 긴급 1천억 편성 경영안정 3천억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1차 추경을 통해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미국 관세조치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지난 1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진공은 5,000억 원의 정책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통상리스 크대용 긴급자금 1천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 원이다. 이로써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5.13조 원에서 5.63조 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중진공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통상리스크대용긴급자금을 신설하여 1천억 원을 마련했다.

/김영태 기자

한시 긴급자금임을 감안하여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 6년으로 운영하며 1년 추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경영 애로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천억 원 증액했으며, 기업 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특히 보호무역 피해와 환율피해 사유 해당 기업은 기존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조건을 완화해 경영애로 규모에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가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천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규 국가로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국 다변화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요건을 완화해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았더라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은 15일 '2025년 JB은퇴 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고객과 '은퇴 후 전략 준비' 소통

JB 은퇴·연금 세미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 및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2025년 JB은퇴·연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5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퇴직된 다음 날 공금한 9가지'를 주제로 열렸다.

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가 강연자로 나서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 △퇴직소득 세금 처리 △건

강보험과 국민연금 연계 △노후 자산 배분 전략 △은퇴 이후 삶의 태도 변화 등 퇴직 후 많은 이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짚어가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은 생생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막연했던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영태 기자

5월 ‘문화가 있는 날’ 전주시 도서관 문화행사 풍성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8개 도서관서 프로그램 운영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8개 도서관에서 부모교육 특강과 작가 초청강연,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전주시는 매월 다양한 강연과 공연, 체험 등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건지도서관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민영 컬러힐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컬러테라피’를 주제로 부모교육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색채심리진단을 통해 진단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인후도서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영상아카이빙을 전공한 김건 교수를 초청해 ‘세계영화사-다양한 영화운동의 생성 및 특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영화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쪽구름도서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언어학자인 로버트 파우저 작가를 초청해 ‘세계의 도시 읽기’를 주제로 각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해 색다른 관점에 대해 공유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서이레 작가를 초청해 ‘정년 이라는 작품을 통해 글을 창작하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의 탄생 비화’를 독자들과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오는 31일에는 서신도서관과 평화도서관, 금암도서관, 효자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연과 공연이 이어진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강력 대응”

장학사 채용 비리 제기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단이 최근 제기된 서거석 교육감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교육청 내부 변호사들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전북교육청 변호사협의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단체 및 개인들이 전북교육청 정책과 운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조직 안정성을 위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협의회는 고문 변호사 10명, 자문 변호사 19명, 상임 변호사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회견은 최근 논란이 된 서거석 교육감의 장학사 채용 비리 의혹

과 전북과학교육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이다.

협의회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관련 수사 요청이 이어지면서 교육청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규정된 것에 대한 지적에 협의회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 교육감과는 사전에 교감하거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범법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국토부 한옥설계·시공 교육사업 나란히 파내

국내 유일 한옥 교육 메카 입증
사회공헌·한옥 세계화 앞장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에 모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축사와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옥 전문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북대가 이번에도 두 과정을 모두 석권했다.

특히 한옥설계 과정은 사업 첫 해부터 연속 선정된 유일한 기관으로, 3년 전부터는 시공과정까지 모두 선정됐다.

전북대는 이 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약 500여 명의 한옥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지속적으로 최우수 교



한옥 시공 실습 모습

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한옥시공 관리자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건축사와 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대학교>

이론교육은 전주캠퍼스에서, 실습 교육은 전국 최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고창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12월 수료식과 함께 그간

의 실력을 선보이는 졸업작품전도 갖는다.

한옥설계 과정 또한 건축사와 설계자를 위한 4개월 교육으로, 같은 시기 모집과 교육 일정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한옥 이론과 설계 실습,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은 이 교육의 실습 결과물인 정자 건축물을 공공기관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고, 지역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를 수년째 이어오는 등 사회 공헌에도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약 10여 개국에서 2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전북도, 제2회 청소년박람회 개막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전북 청소년박람회’가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관계자, 도내 학생 및 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감 표창 및 청소년 축하공연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16일까지 이어지는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일부 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형 행

사로 △미래·진로 △지역·성장 △그린 △글로벌 △상상 △안전 △나눔 7개 분야에서 총 108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청소년 웹터와 휴식공

간을 충분히 마련해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JJ직무박람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JJ직무박람회, 내 꿈(Dream)을 잡(JOB)아!’를 지난 14일 하림미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활약 중인 취업 선배(졸업 후 5년 이내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생생한 직무 현장 경험과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생은 △넥슨코리아(게임기획) △하림(제품연구개발) △NS홈쇼핑(서버풀스택개발) △본아이에프(인사) △노루페인트(안전보건경영) △한국공항공보안(항공보안직) 등 총 30여 개 직무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참여한 후배들에게 진로 설계와 직무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신숙경 교수는 “앞으로도 직무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커리어로드맵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 고교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 본격 추진

해외연수내실화·사전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연수에 철저를 기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7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동문제 해결 능력, 문화 간 협력 역량,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미국 뉴저지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13일간 진행되며 UN 본부, 국제 NGO,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번 사전교육은 해외연수 출발 전 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 단계다. 사전교육은 총 3차례 운영되며 2차 사전교육은 6월 14일, 3차 사전교육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단순한 해외 탐방이 아니”라며 “진로에 대한 사전교육부터 사후성과 관리까지 촘촘히 설계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를 10분 이상 미사용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 20% 절전**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 **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70% 절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양치질, 면도할땐 물 잠궜서 **38% 에너지 절전**



“텀블러 들고 10층으로” 익산시, 직원 휴게공간 활짝

익산시청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신청사에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15일 ‘그레이트 카페(Great Cafe)’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레이트 카페’는 신청사 최고층인 10층에 자리잡아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76자리, 142㎡ 규모이며 감성적인 사진과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따뜻한 우드톤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분위기로 설계됐다. 시는 직원 간 소통 증진을 통해 조직 내 화합과 협업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직원 의견을 반영해 △친환경 카페 △독서형 휴게 카페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 카페를 주제로 조성됐다. 향후 독서 공모전 개최와 상품권 증정 등 직원들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농식품부, 농촌협약 255억 투입

입암면·소성면 등 총 7개 면 생활서비스 개선 목표

정읍시 농촌 지역에 향후 5년간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호연 부시장, 협약 대상 21개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질 없는 지원과 성실한 이행을 합의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 투자 제도다.



정읍시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정읍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상위 거점 지역에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하위 거점 지역에는 중·저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

년까지 5년간 국비 17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덕천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총 7개 면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복지·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맞춤형 ‘정원식 학교숲’ 조성

낭산초·이리동남초 쉼터조경

녹색정원도시 익산시가 푸른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여유를 선물한다. 익산시는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과 유류부지를 활용한 ‘녹색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학교숲 조성사업은 낭산초등학교와 이리동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학교 모두 ‘정원식 녹색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순한 조경을 넘어 학습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낭산초는 지형을 살린 ‘비탈숲’을 조성해 생태적 다양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이리동남초는 기존 스쿨팜과 연계한 ‘화단숲’을 꾸며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2017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총 36개 초·중·고등학교에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해 생태 감수성과 환경 교육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빈집 3,672가구 어떻게 활용할까

도농 환경 개선 정책 마련 빈집 특별반·총괄 부서 신설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산시 역시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산시 역시,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군산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속 박스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현재 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행정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관리 유지 중인 빈집 활용 사업 개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에 해외처럼 빈집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력 강화

‘탐지드론 기술’ 협약 체결

군산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손을 잡았다. 시와 소방본부는 15일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현장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기술’이란,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지점에 소방관 투입 전 드론을 사전에 진입시켜 드론에 장착된 탐지 센서를 통해 유출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방관은 탐지드론이 보낸 정보를 통해 유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양을 빠르게 파악하는 한편 안전한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기술 도입 외에 △현장 중심의 탐지·분석 체계 마련 △교육·훈련 추진 △사고 발생 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본격 가동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

본격적인 날씨가 절을 맞아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와 휴식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달부터 내장산 워터파크의 명물인 음악분수 공연을 시작,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음악분수는 매일 저녁 2회(오후 8시, 9시)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는 방문객들을 위해 오후 2시와 5시 공연을 추가해 총 4회 환상적인 물의 향연을 펼친다. 올해 음악분수는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을 위해 노후된 노즐과 배관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장르

의 새로운 공연 곡을 추가로 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만의 특색 있는 화려한 조명과 역동적인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다만, 분수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공연을 하지 않는다. 또한 우천 시 낙뢰나 강풍이 부는 날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분수 공연을 휴무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워터파크를 찾는 이용객들은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성황산 황톳길 세심한 정비 주문

“시민 발걸음 편안하게”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성황산 황톳길을 직접 찾아, 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산책로로 거듭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황톳길의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먼저 황톳길 일부 구간의 배수 불량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저지대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주변 토사가 황톳길로 유입되면서 황토 고유의 색깔이 퇴색된 구간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색깔을 되살릴 수 있

도록 황토를 보완하거나 흙을 뒤집는 방식으로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지시가 이어졌다. 목조계단 가장자리의 말뚝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 높이를 낮추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척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목조 배수로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 보행 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발 빠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 폭으로 조정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우기철 재해 예방 ‘만전’

익산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자연 재난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현율 익산시장 주재로 ‘우기철 풍수해 대비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안전과, 건설과 등 재난·안전 관련 16개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 사전 대응 방안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현율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피해를 겪

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더욱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해 대응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하천·하수도·옹벽·급경사지·지하차도·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품질 쌀 생산 위한 친환경 공동방제 추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7%인 2,993ha에 친환경 방제약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 지역농협·농업인단체·농업인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산시 환경친화형 벼 공동방제 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업 신청 단계별 △친환경 약제(유기농업 자제) 지원범위 △지원단가 및 사업비 △방제횟수 및 시기 △약제 선정 및 공급방

식 등을 결정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관내 벼 친환경 재배단지 359ha와 옥산·서수·나포·성산·옥구·옥서면 등 총 6개 시면지역 2,634ha에 친환경 살충제와 살균제 구매 비용을 각 2회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총 15억 9,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 참석자들은 병해충의 발생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으며, 병해충 적기·공동방제를 위해 기관 간 협업 방제체계를 통한 세부 방제 요령 등을 참여 농가에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류에서 하늘길까지…순창 매력 발산

순창군 한국축제박람회 참가 道 공동홍보관 운영 관광 명소·특산품 ‘부각’

순창군이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한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순창 관광의 특색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는 18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주)동인전람이 주최하고 (사)한국축제포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대표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관광협회와 협력해 전북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 순창 고유의 관광명소와 지역 대표축제를 널리 알렸다. 그 중 강천산 국립공원, 양지천 생태습터, 용굴산 하늘길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한 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순창의 관광 매력을 강조



순창군이 15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한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순창 관광의 특색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순창군>

했다.

또한 오는 가을 열리는 제20회 순창 장류축제를 집중 홍보하며, 전통 장류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순창만의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를 부각시켰다.

현장에서는 톨렛 이벤트를 운영해 다양한 순창 특산품을 제공,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더하고, 박람회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18일까지 박람회에 참여해 순창 관광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이고, 향후 다양한 외부 관광 수요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K-웰니스 페어’서 발효·힐링 관광지 알려

실랜드·발효테마파크 등 ‘순창 웰니스’ 홍보 활동

‘K-웰니스 도시’ 순창군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해 순창발효관광재단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치유 관광지 실랜드, 2025년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발효테마파크 등을 중심으로 순창

의 웰니스 관광 매력을 알렸다.

‘K-웰니스 도시’는 웰니스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육성 의지,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는 제도로, 순창군은 2021년 전북 최초로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 다시 선정되며 웰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보유한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웰니스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웰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지

자체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운영하는 홍보·체험 부스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순창군은 이번 행사에서 실랜드 외에도 발효테마파크, 강천힐링스파, 강천산 국립공원, 용굴산 하늘길, 장류축제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NS 팔로우 이벤트 등을 통해 미니 고추장, 발효 미생물 캐리더 상품 등을 증정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농식품부, 살고 싶은 농촌 협약

5년간 사업비 337억 투입 북부생활권 등 활성화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2025년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살고 싶은 농촌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2024년 6월 공모에 선정된 시군 지자체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했다.

군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북부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이행을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개별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1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2025-2044년) 및 북부생활권 활성화 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운주면, 경천면), 농촌 공간정비 사업(운주면 말골재 축사정비), 취락지역여건 개조사업 등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은 완주군 북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노동자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업 간담회가 지난 14일 전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작업복 세탁지원 기업 간담회

김재천·심부건 의원 참석 운영현황 공유·의견 취합

2025년 완주군 노동자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업 간담회가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됐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운영한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완주군의회의 김재천 부의장과 심부건 의원이 참여했다. 심부건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기업과 노

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천 부의장은 “향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현재 부족한 예산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완주군, 완주고용지원단, 기업, (유)로알컴퍼니 등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5여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난 4월 현재 약 4,000여 장의 의류를 세탁했다.

한편, 완주군의회의는 해당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관련조례안을 제정하고, 완주군 소재 기업의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강화

한도 7천만원 상향 전국 최대 사고발생지역 상관없이 혜택

남원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의 보장 내용을 5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및 스쿠터가 최근 5년간 492대가 보급돼 이와 관련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제도를 2023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올해 5월부터는 사고당 보상한도

를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여 위 보험상품을 도입한 전국 100개 지자체 중 사고당 보장금액을 가장 높게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 제공

중위소득 100% 이하 114가구 업체 방문 청소·소독 서비스

순창군이 저소득 거동불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매트리스 청소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 및 소독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민참여형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1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매트리스 청소 전문업체가 각 가정을 방문해 침대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당 80,000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읍면별 수요조사와 대상자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치매 걱정 없는 마을 만든다

고산면 삼거리 추가 지정 3곳 치매안심마을 운영

완주군이 고산면 삼거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해 총 3곳을 운영한다. 15일 완주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산면 삼거리 마을을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소양면 죽절리, 삼례읍 하리 등 총 3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치매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관리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왔다.

신규로 지정된 고산면 삼거리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치매 예방 운동 및 인지 강화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화장품기업 7개사

남원종합상사에서 ‘함께 성장’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사장 최경식, 이하 산업연구원)은 관내 화장품 기업들이 지역 상설판매장 ‘남원종합상사’에 입점해 지역 화장품 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남원종합상사’는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구축한 지역 공동브랜드 관이다. 남원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한데 모아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복합 유통 플랫폼이다.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특화 제품을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남원 화장품기업의 입점은 연구원이 추진하는 지역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작약, 제이그라운드, 팜코, 코빅스, 지리산천연허브미, 지가미, 하이솔 등 총 7개사 화장품 기업이 참여했으며, 기초 화장품 제품군 중심으로 남원종합상사 매장 내 화장품 전용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 대상 제품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동브랜드 운영 체계를 활용해 오프라인 중심의 판로를 다각화하고, 지역 유통 네트워크와 연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지리산권 청소년

‘찾아오는 소프트웨어 교육’

남원시는 청소년의 SW·AI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SW미래채움전북사업의 ‘찾아오는 SW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수시 모집한다.

찾아오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의 프로그램은 상시 진행되는 자율 체험과 평일 및 주말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자율 체험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스텝 챌린지, GEO 로봇을 이용한 축구 경기, AR/VR 체험이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태블릿을 활용해 재미있게 블록 코딩을 배우는 아미코딩,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AI크리에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공간 안에서 게임을 제작해보는 메타버스, 로보틱스가 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순회 교육 대응력 강화

완주군이 아토피·천식안심학교로 지정된 18개 학교 및 미취학 기관의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지식 함양과 정보전달을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원 아래, 학교 현장에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체험과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대학교 내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전문가의 교육으로 ▲알레르기질환 식품 찾기 퀴즈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실제 모형 활용 실습 ▲아토피피부염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교생에게 알레르기 낱말퍼즐 맞추기 자가 학습 자료를 배포해 교육의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참여 학생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교육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학생 교육을 기점으로 보호자 교육도 추진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향교지구 주차타워 111면 완공

도심형 공영주차시설 시범기간 무료 운영

남원시는 향교동 332번지 일원에 향교지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1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향교지구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37억 원(도비 15억, 시비 15억,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투입해 조성한 도심형 공영주차시설로써, 2024년 3월 15일 착공해 지난 2025년 4월 30일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주차타워는 철골조 2층 3단 구조, 연면적 2,210㎡, 총 11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3면)·아동배려차량(10면)·전기차충전 주차공간(5면)을 충분히 마련해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주차타워에는 자동 차량 인식 시스템, 화재·재난 대응 시스템,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도 함께 구축했다.



남원시는 향교동 332번지 일원에 향교지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1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주차타워는 당분간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유료로 전환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주차타워가 향후 향교동 일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

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남원시장, 도의원, 시의회의 의장 및 의원, 향교동 주요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주차타워 현장에서 열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꽃길만 걸어요” 익산 곳곳에 어울림 정원 활짝

익산시는 영등2동, 낭산면, 용동면이 주민들과 어울림 정원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영등2동은 영등시민공원 축구장 뒤편에 ‘사계(巳季)정원’을 조성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는 뜻과 2025년 벚의 해를 기념하며 정원 이름을 붙였다. 우드칩과 화산송이석으로 바닥을 정돈하고, 맥문동, 아주가, 핑크셀릭스, 수수꽃다리 등 다양한 조화류와 관목을 식재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미래 꿈나무 위한 아름다운 기부 전유심 어르신 익산시에 장학금

익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어르신인 평소 틈틈이 아낀 생활비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전유심 어르신’. 어르신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정성껏 모은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기탁식에 참여한 전유심 어르신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자원봉사센터, 하서면서 이동세탁 봉사 실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4일 임시 하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이동세탁 차량 ‘뽕송이’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정흥기 센터장)와 하서면 고평심 부녀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부녀회원들이 참석했다.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 이불 세탁을 하지 못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수거하여 세탁한 뒤 건조까지 해서 집까지 가져다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소방서 한호희소방사“준비된1초가생명 지켰다”

출근 중 교통사고 현장서 대형 화재 막아

출근 중이던 소방대원이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연기가 발생하는 차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조치를 해 2차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경,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 대응예방과 소속 한호희(남, 26세)(사진) 소방사가 정읍



구조 활동에 나섰다.

현장에는 탑승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놀란 이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해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했고, 특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한 초기 대응을 이어간 한 소방사의 조치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사고는 마무리됐으며, 정읍소방서는 이후 부상자 10명을 분류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분산 이송했다. 한호희 소방사는 2024년 1월 임용된 신입 소방공무원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

관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사고 이후 조용히 복귀해 자신의 선행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나중에 현장에 출동한 대원의 전언을 통해 미담이 전해졌다. 최경천 정읍소방서장은 “현장을 먼저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이 위험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점이 인상 깊다”며 “안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빛난 사례”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인공지능고 교직원·다온바이오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고창군에 연이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교직원들과 다온바이오 이정준 대표가 각각 100만원, 500만원을 쾌척하며 따뜻한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정순량 교장은 “고창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임직원들과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국제미소레, 김제시에 성금 총 3천만 원 기탁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

김제 지역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국제미소레(회장 김명기)가 총 3,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웃돕기성금 1,500만원, 김제사랑장학금 1,500만원을 기부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인재 양

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 미소레 김명기 회장은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김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을 위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리다”며 “보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 성관사 장수 계남면에 백미 31포 기탁

장수군 계남면은 지난 14일 성관사(주지스님 윤진)가 백미(20kg) 31포(190만원 상당)를 계남면에 기탁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성관사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장계면과 계북면 기탁에 이어 계남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 윤진 주지스님은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주 에코누리어린이집, 알뜰장터 수익금 전액 기부

전북자치도 전주시 에코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은 15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26만원을 기부했다. 에코누리어린이집은 각 가정에서 사용 안하는 물품 등을 모아 원아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하나 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모아진 수익금 전액을 전주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전주시복지재단 “2025년 백만천사 31호”가 된 에코누리어린이집

은 하나바다 장터를 통해 원아들에게 사회성과 경제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의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눔 행사를 준비해준 에코누리어린이집 안강순 원장과 교직원들, 기부에 함께 해준 원아, 학부모들께 감사드리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불교대학,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성금 기부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전주시에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엄마의 밥상’ 지원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와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부해주신 성금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희망을 전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익산시 영등1동 ‘꿈 인테리어’, 저소득층에 생활용품 기탁

익산시 영등1동은 ‘꿈 인테리어(대표 곽현상)’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5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접시, 마스크, 학용품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이뤄졌다. 노인과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곽현상 대표는 “생활용품이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一事一言〉



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항암 치료의 기회!(3)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즉,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온갖 사회적 경쟁에서 강자 내지 승자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왔다.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소망을 품고 산다. 돈과 권력, 연줄을 맘껏 향유하며 사는 기득권층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를 써서 기득권층이 되면 권력을 맘껏 누리면서 중독되는 '향유 중독'에 빠지고, 그 아래에 있는 대다수는 그런 기득권을 다투아가고 싶어 조바심에 안달하는 '동경 중독'에 빠진다. 그리하여 모두, 자기도 모르게 중독 메커니즘의 희생물이 된다. 그래도 현수막으로 축하하는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그간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칭찬할 만하다. 다만, 그런 행위들이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좌절감, 절망감, 상실감, 자괴감, 낭패감, 열등감, 열등감, 좌절감, 수치심을 안겨다 줄까봐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법고시 합격 이후에 판검사가 되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부탁, 주문하는 일이다. 개인 성취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단지 가족이나 지인 차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나 변호사

들이 정식 임용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같은 차원의 가치관 교육이 확실히 돼야 한다. 과거에 많은 교사들은 바람직한 인격체를 기른다는 일념으로 박봉도 마다 않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런 분들처럼 판검사나 변호사들도 돈이나 권력에 중독되기보다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해 나라를 민주사회답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온갖 제도나 정책들을 그럴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보강해 나가야 한다.

돈과 권력, 즉 물질적 이해관계에 중독된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종교 등 각종 조직들마저 중독 행위자가 되기 쉽다.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는 개인들 역시 쉽게 중독자가 되어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사회에서 그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 범의 타락은 물론, 사람의 타락, 그리하여 공멸의 세상에 빠지게 된다. 마치 2014년 세월호 배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 대한민국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 정신'을 가진 개인, 조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선진국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 후손들 앞에 '사회적 어른'으

로서 떳떳이 뵈가 내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중독된 기득권층에게 말한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다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부작위), 그리하여 매일 좋은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손주들 재롱에 박수나 치며, 여행이나 헬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와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개인적' 차원의 권고보다 중요한 게 사회적 차원의 구조 변화다. 내가 보기에 아직 내란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고, '비정상적 정상화'나 '정상적 일상화' 역시 요원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당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이뤄내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은 다음 몇 가지를 절박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처럼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 즉 5.1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조희대(사법 쿠데타) 특검'이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선언되고 탄핵되었듯이, 조희대의 대법원 판결 역시 중차대한 절차상 하자, 그리고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기에 해당자들(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등)을 탄핵하고 '5.1 대법원 판결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일 분, 일 초가

급하다.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고법 재판이 최소한 5년간 연기되고 사실상 무죄 결정될 것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여차하면 실효성 있게 전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란 세력들은 기존의 '합리적' 상식과 관행을 완전히 짓밟아 왔음을 기억하자.

둘째,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법원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원수는 물론,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 360명이 5개 분야별로 하급심들의 '법리 적용' 검토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보다 10~20배 늘리면 좋겠다. 한편, 안 그래도 권력을 집중 장악한 대통령이 중요 재판관들의 추천까지 상당수 독점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없애야 한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신중론' 재고해야

공직자, 그중에서도 국가의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관이나 고위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법치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혹중점 항응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해도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파를 던졌다.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접대와 항응의 의혹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는 공직사회와 사법부를 더 깊은 불신의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일면 타당한 우려로 읽힐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를 앞둔 전략적 고려가 법적 절차를 앞설 경우, 오히려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공직자의 중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진상 규명은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관련자가 고위직일수록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반복되고 만연하는 이유는 발본색원의 단호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크고 작은 비리가 터졌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고, 때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버티면 산다'는 그릇된 학습효과와 내성만 남겼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귀연 판사의 항응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중요한 경고이자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기대의 표현이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고위 공직자, 특히 사법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해이, 특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자에겐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수사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만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는 사법의 퇴행이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재판관의 사임 또는 직무배제를 포함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지금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 국민은 판단할 줄 안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기 전에라도 제도와 시스템은 반드시 먼저 작동해야 한다. 사법의 권위는 무오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법관의 일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부패가 판치는 사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연안이씨이유길가전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기록유산, 문서류
-지정일- 1989년 1월 9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화재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소식 444호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새벽에 들은 노래 / 한강

봄빛과 번지는
어둠 틈으로
반쯤 죽은 낮
알비처
나는 입술을 다문다

숨은 숨
넋은 낮
나는 입술을 다문다

틈이 닫히면
입술을 열어야지
허가 녹으면
입술을 열어야지

봄은 봄

어디까지 번져가는 거야?
어디까지 스며드는 거야?
기다려보아야지

다시는
이제 다시는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성문

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정',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아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등극했다.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5~6월 진안 여행 추천

“초록에 물들다, 마음이 쉬어간다”

지친 일상에 썬표를,
진안에서 만나는 고요한 초록의 시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한 '초록빛 힐링' 여행지를 제안한다. 면적의 약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진안은 고요한 산자락과 맑은 공기, 여유로운 걷기 코스를 품은 고장이다. 특히 초록이 짙어지는 5월과 6월은 진안의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걷고, 보고, 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진안의 대표 힐링 명소 4곳을 소개한다.

구봉산

천천히 걸을수록 깊어지는 초록의 매력

- 진안고원길

진안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 코스가 바로 '진안고원길'이다. 해발 400m에 이르는 고원지형을 따라 조성된 이 길은 총 14개 구간, 약 210km로 구성돼 있다.

걷는 속도에 따라 자연과 교감의 깊이도 달라지는 이 길은 '이어걷기'라는 이름처럼 여러 차례 나누어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숲길과 논길, 마을길이 조화를 이루며, 때로는 호젓하게,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걸을 수 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6월에는 온 들판과 산길이 신록으로 물들어 걸음마다 초록이 스며든다. 고원지대 특유의 청량한 공기와 계절의 향기가 어우러져 '느리게 걷는 여행'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자연과 함께 걸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진안고원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이다.

'진안고원길 이어걷기'는 14개의 코스를 3개월에 걸쳐 이어 걷는데, 매년 계절을 달리해 진행하기 때문에 진안의 사계절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해마다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차별 평균 참여자가 2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안의 대표적인 로컬 콘텐츠다.

'2025 진안고원길 이어걷기'는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시작한다.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구간 출발지로 오전9시까지 오거나 진안만남센터에서 8시30분에 카풀로 이동한다.

웅장한 자연과 사색의 시간 - 마이산

마이산(馬耳山)은 진안군의 상징이자 전국에서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두 개의 말귀 모양 봉우리가 우뚝 솟은 형상도 웅장하지만 봉우리 표면에 움푹 파인 커다란 구멍들은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 준다. 5~6월의 마이산은 회색의 봉우리가 주변의 짙어진 녹음에 둘러싸여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마이산 도립공원에는 가족끼리 와서 부담 없이 탐방할 수 있는 산행 코스가 마련돼 있다. 산 아래로 펼쳐지는 숲과 하늘, 돌담과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킨다.

마이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두 봉우리 사이를 통과해 마이산의 남부와 북부를 잇는 진안고원길 트레킹 구간은 건강한 산책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남부의 산책길을 걸으며 낭만을 즐기고, 탐사에 도착해 신비로운 분위기에 취했다면 두 봉우리를 통과해 북부로 넘어가자.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을 지나 진안홍삼스파에서 여행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홍삼스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 목적형 스파로, 10가지의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다.

마이산에는 진안의 특산물인 흑돼지와 더덕을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로컬음식을 선호하는 여행자라면 고원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를 맛을 한껏 살린 지역음식을 절대 놓치지 말자.

한적한 숲길 따라 마음까지 맑아지는 산행 - 구봉산

마이산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깊은 숲의 매력을 품은 산이 있다. 바로 구봉산이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100대 명산'에 포함되며 2030 세대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식어버린 마그마가 풍화와 침식으로 깎여 이층처럼 지금의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어지는 모양을 갖게 됐다. 봉우리가 아홉 개나 되는 탓에 중급 이상의 트레킹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4봉과 5봉 사이에는 100m 길이의 구름다리가 놓여 있어 아찔하면서도 하늘을 걷는 듯 벅찬 기분이 든다. 구봉산은 등산로로는 운장산, 운임암반일암과 이어지고, 시야를 조금만 멀리 두면 용담호까지 조망할 수 있어 최근에는 백패커들도 많이 찾고 있다.

아홉 개의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 머릿속은 점점 비워지고 바람 소리와 새소리,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볕에 오감을 맡게 된다.

시간도 쉬어가는 진안의 초록 터널

-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진안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 부귀면에 자리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이다.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만든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초록 터널이다. 걷기 여행객뿐 아니라 자전거 라이더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경사와 커브가 어우러진 도로 덕분에 감각적인 촬영을 할 수 있어서 SNS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푸른 나무 아래를 걷다 보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걷기에도 무리가 없어 힐링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전춘성 진안군수 인터뷰>

“속도를 늦추면, 진안이 보입니다”

진안은 빠른 걸음보다 느린 걸음에 어울리는 곳이다. 도시의 바쁜 삶에서 잠시 멀어지고 싶은 이들에게 진안의 초록은 깊은 썬표를 선물한다.

5~6월, 진안은 초록으로 마음을 채우는 계절이다. 걷고, 보고, 쉬는 단순한 여정이 위로가 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이 치유가 되는 곳. 진안은 그 자체로 힐링 여행지다.

이번 초여름, 복잡한 마음과 쌓인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진안의 고요한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진안이 주는 초록의 위로는 기대 이상으로 깊고 따뜻한 것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마이산



부귀 메타세쿼이아길